

# 2002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의 딜레마

박영숙 |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



1992 리우지구정상회의(리우회의) 10주년을 계기로 의제21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2002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2002 WSSD)가 8월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다. 이 회의에는 100여 개국의 정부대표를 포함한 189개 유엔회원국, 국제기구 및 산업계, 지방자치단체, NGO대표, 언론보도진 등 6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정부대표를 포함해 각계에서 500여 명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WSSD는 아태지역 등 5개 권역별 회의와 4차에 걸친 준비회의를 끝내며 회의개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우리나라는 WSSD사무국이 권고한 바 있는 국가준비위원회의 업무를 대통령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우리나라가 지난 10년 동안 이룬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의 성과를 검토하는 한편 WSSD의 논의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책 검토 등 회의참가를 준비하고 있다.

2002 WSSD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과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각국 정상의 실천의지를 담은 '정치적 선언문'과 그 실천계획으로서의 '행동계획' 그리고 이해당사자간의 자발적 공약인 '파트너십/이니셔티브' 등 3개 문건을 합의하여 채택하는 것이다. 행동계획의 주요 과제들은 빈곤문제,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천연자원 관리, 보건 문제, 해양수산 문제, 에너지 문제, 그리고 이행수단으로서의 재원지원과 기술이전 등의 난제들이다.

WSSD의 마지막 준비회의였던 발리에서의 장관급회의 결과를 보면 WSSD의 당초 목표인 '리우선언'과 '의제21'에 대한 실천전략 수립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10년 전 리우회의가 직면했던 한계에서 진일보하지 못하고 있어

WSSD성과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고 있다.

1997년의 유엔환경특별총회(리우+5)를 위한 협상기구의 부위원장이었으며 영국의 유엔환경과개발 위원회(UNED-UK)의 위원장인 데렉 오스본(Dereck Osborn)이 정치적 선언문조차 합의해내지 못했던 리우+5의 실패를 WSSD가 되풀이해서는 안되며 물론 10년 전 리우회의보다 후퇴해서도 안 된다고 일찌감치 경고한 사실을 떠올리게 한다.

리우회의가 생태계 파괴에 대한 국가정상들의 공감대를 공고히 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여론을 넓고 크게 제고하였으며 '리우선언문'과 '의제21'을 통해서 국제협력의 청사진을 만들어낸 것은 분명한 성과다. 특히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9개 주요 행위자들과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를 건인해낸 것은 성과 중의 성과다. 지구환경문제는 국가정상들의 합의로 성취할 수 있는 핵감축 문제와는 달리 지구인 개개인의 참여와 그들에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구환경은 리우회의 이후에도 개선이 아닌 악화 일로의 길로 치닫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행수단과 추진일정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금번 WSSD에 기대하는 바도 개도국에 대한 재정지원과 기술이전 문제 등의 이행수단에 대한 확고한 실천의지의 표명과 합의다. 이 문제가 제4차준비회의에서 WSSD본회의로 이양된 것이다. 금번 WSSD가 이 숙제를 풀어내지 못하는 한 WSSD는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에 지나지 않게 된다.

오늘의 지구환경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누구나 분명히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사항의 합의는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국제정치, 경제, 사회구조 및 체제가 '남북간

의 이해대립'과 '각 국가간의 이해대립'이라는 장벽을 뛰어 넘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서다. '지구는 하나인데 세계는 하나가 아니다'는 것이 지구환경문제 해결의 걸림돌이며 딜레마다.

2002 WSSD에서도 이 딜레마의 탈출구를 찾지 못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10년을 지내도 되는 것인가. 우리는 많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금번 WSSD 국가준비위원회의 실무에 관여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WSSD의 의제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책이 모든 의안에 대해 여전히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경우 그에 따르는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력으로는 세계 10위권, 과학기술평가에서는 10위, 인간개발지수에서는 140여 개국 중 30위권에 있지만 환경지수는 95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공헌도는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비단 WSSD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 사회정의 및 환경보전의 통합정책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 그것은 의제21의 행동강령이 국가정책과 연계되어 실천하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국토관리도 예외가 아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중 90%가 이미 지방의제21을 수립했거나 수립중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은 마련되었다. 남은 과제는 우리정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나라가 WSSD의 딜레마를 푸는 실마리도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㉓

# 국토

PLANNING AND POLICY 2002 · 8

## WSSD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치수사업 추진방향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대학도시, 옥스퍼드(Oxford)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발달 현황  
아파트단지 중심으로의 마을개념 변화와 관리사무소의 역할



### 국토시론 | 2002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의 딜레마 2

박영숙 \_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장

### 짧은 글 긴 생각 | 자전거 예찬 4

최성각 \_ 소설가, 풀꽃세상 사무처장

### 특집 | WSSD와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 1. WSSD의 주요 의제와 과제 6

고재영 \_ 환경부 국제협력관

#### 2.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 14

박찬용 \_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팀장

#### 3.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23

김재옥 \_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회장

#### 4. 지속가능한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 32

김선희 \_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 5. 세계화와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43

정희성 \_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용어풀이 48 |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외 52

한순금 \_ 국토연구원 연구원

### 정책해설 |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치수사업 추진방향 53

김명국 \_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하천계획과장

### 특별기고 | 아파트단지 중심으로의 마을개념 변화와 관리사무소의 역할 59

####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상삼 \_ 뉴하우징 경기지부장, 숙명여자대학교 강사

### 가던 길 멈추고 69

이건모 \_ 수목화가

### 세계의 도시 48 |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는 대학도시, 옥스퍼드(Oxford) 70

강현수 \_ 중부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발행일 2002년 8월 10일

발행인 이정식

편집위원장 김용웅

편집위원 정희남 김선희 김명수

조남건 윤하중 김근용 사공호상

홍상기 이원섭 차미숙

정보자료팀(출판담당)

박순업 한여정 김진배 정진우

전화 031-380-0114(대표)

031-380-0426(구독문의)

팩스 031-380-0474

홈페이지 www.krihs.re.kr

디자인 (주)에원기획

02-745-8090~4

국토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토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77



102





#### 화진 해수욕장

포항시내에서 영덕·울진 방면으로 20km지점, 백사장 길이 400m, 폭 100m, 물이 맑고 주변 경관이 아름다운 해수욕장이다. 그림원경 돌출된 곳이 장미꽃(호미꽃)이다.

학산 박병주 · 2002년 8월

#### 해외리포트 | 독일의 재생가능에너지 발달 현황 77

이상훈 \_ 에너지대안센터 사무국장

#### 지역통신 | 온천,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 외 84

#### @ - Interview | 에이드리안 스미스(Adrian Smith):

전환기 이후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경제지리학 87

이승철 \_ (재) ICU 국제정보경영연구원 연구위원

#### 살기좋은 우리동네 15 | '갈림길에 선 예래마을의 선택' - 제주도 서귀포시 예래동 102

김경훈 \_ 예래환경연구회 공동회장

#### 알림 | 원고모집 안내 107

#### KRIHS FOCUS | 토지의 공익과 사익에 관한 조정 워크숍 108

김성수 \_ 국토연구원 연구원

#### 이달의 보고서

##### 선계획 후개발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118

권용우 \_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 대표

##### 물 수요예측 논쟁을 위한 사전 필독서 120

김 승 \_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확보사업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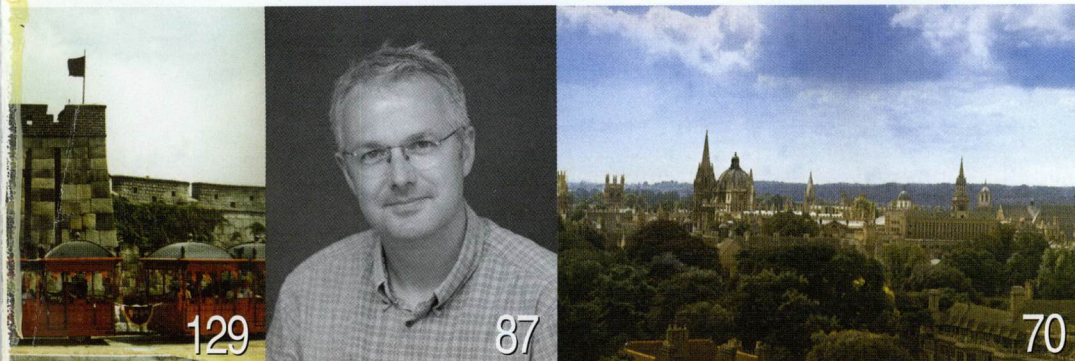
#### 간추린 소식 | 2002년 하계 정부합동특별교통대책 수립 외 122

#### 국토연구원 판매보고서 목록 126

#### 독자와 함께 128

#### 우리 문화유산의 향기 30 | 적대(敵臺) 129

박영순 \_ 자유기고가



129

87

70